

< 보도자료 >

두발자유화! 학생인권법안 통과!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출발 기자회견**

- 때: 2006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 곳: 교육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청소년인권 전국행진단

(<http://cafe.daum.net/youthhr>)

문의 : 전누리, 배경내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전누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행진단장)

1. 전국행진 취지와 주요 일정 소개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 연대사

- 김재석(전교조 부위원장)
- 양동훈(교육공동체 나다 교사)

3. 행진 참가 청소년 발언

- 김초롱(청소년 참가자)
- 조만성(최연소 참가자)
- 이상학(지역 참가자)

4. 함께 부르는 노래

5. 행진선언문 낭독

6. 퍼포먼스 : 청소년인권 파란 돌풍

[자료 1]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총 기획

1. 기획 취지

- 수많은 청소년들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학교를 넘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소중한 움직임들은 그러나, 서울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여러 소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지만, 너무나 야만적인 학교에 의해 이내 본격적으로 타오르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전국행진은 바로 지금 전국 곳곳 청소년들의 소중한 움직임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것입니다. 행진단은 전국을 돌면서 청소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소수의 발걸음을 다수의 발걸음으로 만들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지역단체, 청소년들과 활동 내용을 교류하고 고민을 나눔으로써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가 담긴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홍보함으로써 법안의 통과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2. 행진 주최

■ 주최

: 전교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각 지역별 주최

[인천] 전교조 인천지부

[대전] 전교조 대전지부

[전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울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사회당 울산시당/ 울산교육시민회/ 울산YWCA/ 청소년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대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 물품·재정 후원

: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노동당/ 인천노동자교육기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 전교조 울산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그 외 지지하는 개인들

3. 행진단 주요 일정

: 서울 → 인천 → 대전 → 전주 → 울산 → 대구 (총 6개 도시)

● 8.14(월) 서울~인천

- 11:00 교육부(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기자회견
- 12:00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 청소년 1인시위자 지지방문
- 15:00 인천 도착
- 16:00 인천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 18:00 인천 시내 캠페인 (곳: 부평역 광장 & 부평지하상가)
- * 인천에서 숙박 (숙박장소 도움준 곳: 인천노동자교육기관)

● 8.15(화) 인천~대전~전주

- 9:00 대전으로 출발
- 13:00 대전 시내 캠페인 (곳: 으능정이 사거리)
- 16:00 대전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곳: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
- 19:00 전주로 출발
- * 전주에서 숙박 (곳: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 8.16(수) 전주~울산

- 10:00 전주 시내 행진과 캠페인 (곳: 객사길)
- 13:00 전주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 16:00 울산으로 출발
- * 울산에서 숙박 (곳: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관)

● 8.17(목) 울산~대구

- 13:00 울산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울산참여연대 교육관)
- 16:00 울산 시내 집회 (곳: 성남동 차없는 거리)
- 20:00 대구로 출발
- * 대구에서 숙박 (곳: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

● 8.18(금) 대구~서울

- 10:00 대구시 교육청 앞 집회 (곳: 교육청 앞)
- 11:00 대구 시내 캠페인 (곳: 동성로)
- 13:00 대구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간담회 (곳: 우리세상)
- 16:00 서울로 이동

4. 주요 행사 내용

1) 행진단 출발 기자회견

- 곳 : 교육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 때 : 14일 11시
- 순서
 - 전국행진 취지와 주요 일정 소개
 - 연대사 - 전교조, 교육공동체 나다
 - 행진 참가 청소년 발언
 - 함께 부르는 노래
 - 행진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파란만장 학생인권

2) 캠페인

- 곳 : 인천 부평지하상가 / 대전 으능정이거리 / 대구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광장
- 때 : 인천 14일 18시 / 대전 15일 13시 / 대구 18일 11시 (1~2시간 진행)
- 순서
 - 자전거 홍보
 - 시작을 알리는 몸짓
 - 캠페인 취지를 알리는 발언 (1명씩 돌아가면서)
 - 전단지 배포와 학생인권법안 국회 통과 서명
 - 참여 프로그램 : 우리 학교 이야기, 교복을 입은 허수아비에 '우리의 바람' 실기

3) 행진

- 곳 : 전주 객사길
- 때 : 16일 10시
- 순서
 - 행진 시작 선언
 - 동아리 공연
 - 자전거와 자동차 따라 사람들의 행진
 - 객사 주위 시내를 한 바퀴 돈 뒤 객사 중앙에 자리잡고 캠페인(캠페인 형태는 동일)

4) 집회

- 곳 : 울산 성남동 차없는 거리/ 대구 교육청 앞
- 시간 : 울산 17일 16시/ 대구 18일 오전 10시
- 순서
 - 시작 전 캠페인을 겸한 자전거 홍보
 - 몸짓, 동아리 공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 노래 부르기/구호 외치기

- 참가자 발언, 지역단체 활동가 발언
- <이건 아니잖아> 등 개그 프로그램을 비롯한 패러디 퍼포먼스
- 청소년인권행동 촉구/결의 발언
- 참여 행사 : 허수아비에 생명을!/ 학생인권 입학식/ 분필 퍼포먼스/ 삼행시 짓기

5) 지역 간담회

◇ 날도 더운데 왜?

- ♡ 청소년인권 활동가들끼리 안면도 트고 지역간 연대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 ♡ 우리 각자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 활동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합니다.
- ♡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 ♡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공동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봅니다.

◇ 구체적으로 나눌 이야기들

- ☞ 각자 지금까지 활동해온 이야기
- ☞ 활동하면서 또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
- ☞ 서로에게 제안하고 싶은 활동
- ☞ 하반기 전국 공동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
 - 예) 국회앞 청소년 시위나 기자회견, 학생인권법 정기 캠페인, 학생인권침해·저항 사례·학생인권법 서명 모으는 온라인 이슈페이지 개설, 9월초 전국 동시다발 스쿨어택, 전국 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 개최, 권역별 청소년인권행동 조직 등

<자료 2>

파란이 있는 곳에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출발 선언문

청소년들의 불온한 몸짓, 전국적인 파란을 위하여!

청소년인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외계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21세기 현대 한국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은 어른들 말 잘 들으며 자라서 사회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청소년들의 인권은 바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학벌, 또는 돈 잘 벌 수단을 얻는 것이라고. 아니 이런 똥알앵알. 청소년들의 진정한 인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히 말하건대, 청소년들은 지금 인권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사회와 교육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를 '체벌'이란 이름을 붙여 교육적 폭력이라고 정당화시킵니다.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청소년들을 선도하려고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특정한 외모만을 강요하는 두발규제나 복장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만히 보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말들은 너무나 비슷비슷하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와서 질릴 정도입니다. 체벌이나 두발규제가 없으면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없어서 학교가 붕괴될 것이라고, 임금을 성인과 똑같이 주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경제적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거리를 싸돌아다니면 엄한 짓이나 한다나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사랑을 하며, 그러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찌냐고도 하더군요. 인권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은 불량하고 불온하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였는지 뭔지 하는 책에서 배웠던 거 같습니다. 사회 질서의 유지 목적은 바로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부당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후천성 개념결핍증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권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질서를 고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청소년들은 이미 옛날부터 잘못된 사회에 개기고, 맞장을 뜨며 세상에 파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징계의 위협에도,

‘왕따’라는 치사한 보복에도 두려움 없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결과물로 청소년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모든 인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최순영 의원의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의 인권 함성과 개김성의 발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청소년들의 공개적인 행동이 없었던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전국적 청소년인권행동의 연대 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우리는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이번 행진에서 찾아가는 인천, 대전, 전주, 울산, 대구 이 5개 도시에서라도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불별더위를 뚫고 돌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짓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들이 청소년인권을 위한 전국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진에 들이는 노력들이 청소년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불러오는 타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전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세상에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청소년 인권의 돌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길을 떠납니다.

2006년 8월 14일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자들